

김수영문학관 2021년 상반기 정기 인문학 강연

“김수영문학관과 함께하는 김수영 시인과의 산책”

- 제 3 강 -

강연자 : 오형엽 교수 (고려대)

강연주제 : '김수영시의 새로운 이해
: 첨단과 정지의 변증법'

김수영 시의 새로운 이해 : 첨단과 정지의 변증법

오형엽(고려대)

1. 문제 제기

(1) 김수영 시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인 평가

- 김수영의 전기 시는 순수시(모더니즘시)에서 출발한다.
- 4·19 혁명을 경험하면서 참여시(리얼리즘시)로 전환하여 1960년대 대표적인 참여시인이 된다.
- 따라서 김수영의 시는 1960년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전기 시와 후기 시로 구분된다.
- 후기 시의 마지막 작품인「풀」은 참여시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2) 김수영 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 김수영은 1960년대 참여시와 순수시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그 양극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려 했다.
- 따라서 김수영은 4·19 혁명 이후 순수시에서 참여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이 양극을 시 작품 속에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
- 마지막 작품「풀」(1968)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 점을 검증하려 한다.
- 「풀」(1968), 「꽃잎 1」(1967), 「절망」(1965), 「서시」(1957) 등의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여 김수영 시의 핵심적 특성을 규명하려 한다.

2. 「풀」에 대한 새로운 해석 : 풀과 바람의 관계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하나인 김수영의 시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풀」이다.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되는 것은 ‘풀’과 ‘바람’의 정체 및 그 관계성이다. ‘풀’과 ‘바람’의 정체 및 그 관계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다시 읽으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

풀

김 수 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1968. 5. 29)

(1) 해석의 핵심적 관점

- 「풀」은 ‘표면 구조’와 ‘내면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둘이 모순과 균열을 안은 채 결합되어 있다.
- 지금까지 「풀」은 ‘표면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내면 구조’를 함께 살펴야 이 시가 주는 ‘은밀한 공감’이 해명될 수 있다.
- 이 두 구조 사이의 관계는 「풀」 뿐만 아니라 김수영 시 전체의 비밀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표면 구조(기존 해석과 연관)

- ‘풀’과 ‘바람’은 대립 관계이다(‘바람’은 억압자이고 ‘풀’은 피해자로 해석됨).
- 구체적 근거는 7번 반복되는 “보다”(비교격 조사)와 2번 등장하는 “더”(강세 부

- 사)이다.
- 이 대립 관계는 '눅는다/일어난다', '운다/웃는다'를 대립(부정/긍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과 연결된다.
 - '바람'을 '외세' 혹은 '독재자'로, '풀'을 '민중'으로 간주하는 것이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풀'은 생명을 가진 존재, 혹은 역사적 '주체'를 상징하고, '바람'은 이 '주체'에 가해지는 '바깥의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 내면 구조(새로운 해석과 연관)

- '풀'과 '바람'은 호응 관계이다('바람'은 시혜자이고 '풀'은 수혜자로 해석됨).
- 구체적 근거는 1연의 "나부껴"(고통이 아닌 즐거움을 표현하는 동사)이다.
- "비"와 "동풍"은 '풀'의 생명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물'과 '운동성'을 부여한다. (풀은 '물기'를 머금어야 잘 자라며, '바람'에 흔들려야 뿌리를 튼튼히 만든다.)
- 이 호응 관계는 '눅는다→일어난다', '운다→웃는다'를 하나의 진행과정으로 해석하는 것과 연결된다(풀은 누워야 일어날 수 있으며, 울어야 웃을 수 있다).
- '풀'은 '주체'의 '필연적(의식적) 이성'을, '바람'은 다른 세계에서 불어오는 '탈주체'의 '우연적(무의식적) 잠재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바람'의 작용 없이는 풀의 누움과 일어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풀'은 '바람'이 지닌 탈자아의 힘과 잠재력으로부터 역동성의 동력을 얻게 된다.)

(4) 모순을 내포한 변증법적 종합

- '표면 구조'와 '내면 구조' 사이에는 모순과 균열이 있다. (이 모순은 김수영의 시가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모순이며, 따라서 이 모순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김수영 시의 정체를 파악하는 실마리가 된다.)
- '표면 구조'는 주로 참여시(리얼리즘시)의 관점과 연관되고, '내면 구조'는 주로 순수시(모더니즘시)의 관점과 관련된다.
- '참여시/순수시'의 이분법이 유행하던 1960년대의 시단에서, 이 양극의 모순을 내포한 채 그것을 하나의 몸(시)에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려 한 것이 김수영의 시도였고, 이 시도가 농축되어 마지막 작품 「풀」에 녹아들었다.
- 결국 김수영은 순수와 참여, 첨단과 정지, 해탈과 풍자 사이의 간극을 자신의 몸(시)으로 메우려는 노력을 시적 생애를 통해 일관되게 추구했다.
- 따라서 김수영은 초기의 모더니즘시에서 후기의 리얼리즘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시의 예술성과 사회성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려 했다.

3. 「꽃잎 1」, 「절망」에 대한 새로운 해석

2장에서 제시한 '바람'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꽃잎 1」과 「절망」을 해석하고자 한다.

(1) 「꽃잎 1」의 '바람'

꽃잎 1

김 수 영

누구한테 머리를 숙일까
사람이 아닌 평범한 것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벼를 터는 마당에는 바람도 안 부는데
옥수수잎이 흔들리듯 그렇게 조금

바람의 고개는 자기가 일어서는 줄
모르고 자기가 가닿는 언덕을
모르고 거룩한 산에 가닿기
전에는 즐거움을 모르고 조금
안 즐거움이 꽃으로 되어도
그저 조금 꺼졌다 깨어나고

언뜻 보기에는 임종의 생명같고
바위를 뭉개고 떨어져내릴
한 잎의 꽃잎같고
혁명같고
먼저 떨어져내린 큰 바위같고
나중에 떨어진 작은 꽃잎같고

나중에 떨어져내린 작은 꽃잎같고

(1967. 5. 2.)

- 소위 난해시 중 하나로 평가되는 작품인데, '바람'과 '꽃잎'의 관계가 해석의 중심축을 이룬다(이 관계는「풀」에서 '바람'과 '풀'의 관계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 '바람'은 탈자아성과 무의식성을 내포한다.
- 구체적 근거는 2연에서 3번 강조되고 있는 단어인 "모르고"이다.
 - 이 시에는 '꽃잎'과 '바위'의 대립이 내재되어 있다.
 - '꽃잎'은 고매한 정신의 상징이다.
 - '바위'는 꽃잎이 대결하고자 하는 공고한 현실의 상징이다.
 - 떨어지는 '꽃잎'의 역동성과 생명력은 바위를 뭉갤 수 있는 힘을 지닌다.
 - '바람'은 꽃에 와 닿아 꽃이 되고 동시에 꽃을 떨어지게 하는 동인(動因)이다(결국 바람은 꽃잎에 개입하는 다른 세계의 힘이고,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탈자아의 힘이다).

(2) 「절망」의 '바람'

절망

김 수 영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이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速度)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拙劣)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댄 데에서 오고
 구원(救援)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絶望)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1965. 8. 28.)

- '풍경', '곰팡이', '여름', '졸렬과 수치'는 각각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 현실의 모든 존재가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는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있음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다.
- 6~7행은 이러한 유아론(唯我論)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바람'을 제시한다('바람'은 '구원'의 차원과 동일시된다).
- '바람'은 주체 외부의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상치 않은 우연성에 기댄 은총과 같은 것이다.

(3) '바람'의 의미

- 「꽃잎 1」과 「절망」의 '바람'은 인식적 주체로서 자아를 이탈하는 다른 세계의 힘으로 해석된다.
- 역사성의 인식이 주체의 이성적 사유 및 필연성과 연관된다면 '바람'은 탈자아의 우연성 및 무역사성과 연관될 것이다.
- 역사성의 인식적 차원만으로는 진정한 시적 완성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안 김수영은 다른 세계의 바람으로부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구원을 원한다.
- 이는 '첨단'과 '정지'의 변증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무한대의 혼돈으로 뺨아 가려는 '첨단'의 속도가 자아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힘에서 생겨난다.

4. 「서시」에 대한 해석

3장에서 제시한 '첨단'과 '정지'의 구체적 의미를 살피기 위해 「서시」를 해석한다.

서시

김수영

나는 너무나 많은 첨단(尖端)의 노래만을 불러왔다
나는 정지(停止)의 미(美)에 너무나 등한(等閑)하였다
나무여 영혼(靈魂)이여
가벼운 참새같이 나는 잠시 너의
흥하지 않은 가지 위에 피곤한 몸을 앉힌다
성장(成長)은 소크라테스 이후의 모든 현인(賢人)들이 하여온 일
정리(整理)는
전란(戰亂)에 시달린 이십세기(二十世紀) 시인(詩人)들이 하여놓은 일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영혼(靈魂)은
그리고 교훈(教訓)은 명령(命令)은
나는
아직도 명령(命令)의 과잉(過剩)을 용서할 수 없는 시대(時代)이지만
이 시대(時代)는 아직도 명령(命令)의 과잉(過剩)을 요구하는 밤이다
나는 그러한 밤에는 부엉이의 노래를 부를 줄도 안다

「서시(序詩)」 중 1연 (1957)

(1) 해석의 핵심적 관점

- 시인은 이전까지의 시적 여정을 반성하면서 전환적 인식과 그 실천을 천명한다.
- 이 시의 전체적인 전개는 '첨단의 노래'와 '정지의 미'라는 대립 개념이 '나무'라는 하나의 종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2) '첨단'과 '정지'의 의미

- '첨단의 노래'는 '시대를 앞질러 가는 전위적 시의식'(시의 예술성)을 뜻하고,
- '정지의 미'는 '현실의 궁핍과 후진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시의식'(시의 현실성)을 의미한다.
- '첨단의 노래'에서 '정지의 미'로의 전환이 '나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데 주목할 수 있다(9행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는 나무의 꾸준한 성장을 통해 이 양극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시인은 '첨단의 노래'를 포기하고 '정지의 미'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이 결합된 경지를 추구하는데, 이는 '부엉이의 노래'와 상통한다.

(3) '첨단'과 '정지'의 변증법

- 김수영은 산문「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시를 쓴다는 것을 '노래의 유보성-형식-예술성-대지의 은폐'(시의 예술성)와 같은 항에 놓고, 시를 논한다는 것을 '산문의 모험-내용-현실성-세계의 개진'(시의 현실성)으로 묶어 그 대립항에 놓는다.
- 그리고 시의 본질은 개진과 은폐의, 세계와 대지의 긴장 위에 서있으며, 시작(詩作)은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 따라서 「서시」에서의 '첨단'은 '노래-형식-예술성-은폐'가 내포한 의미, 즉 전위적 시의식과 새로운 예술적 형식(시의 예술성)에 대응되고, '정지'는 '산문-내용-현실성-개진'이 내포한 의미, 즉 현실 직시의 명확한 사유와 내용성(시의 현실성)에 대응된다.
- "나무는 자라고 있다"는 이 첨단과 정지의 양극을 온몸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시의식을 제시한다.
- 결국 김수영은 순수시(모더니즘시)와 참여시(리얼리즘시), 첨단과 정지, 해탈과 풍자라는 양극을 모순을 안은 채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시적 생애를 일관되게 보여주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 1957년 창작품 ; 1960년대 4. 19 이전에 이미 참여시와 순수시를 종합하려는 의식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